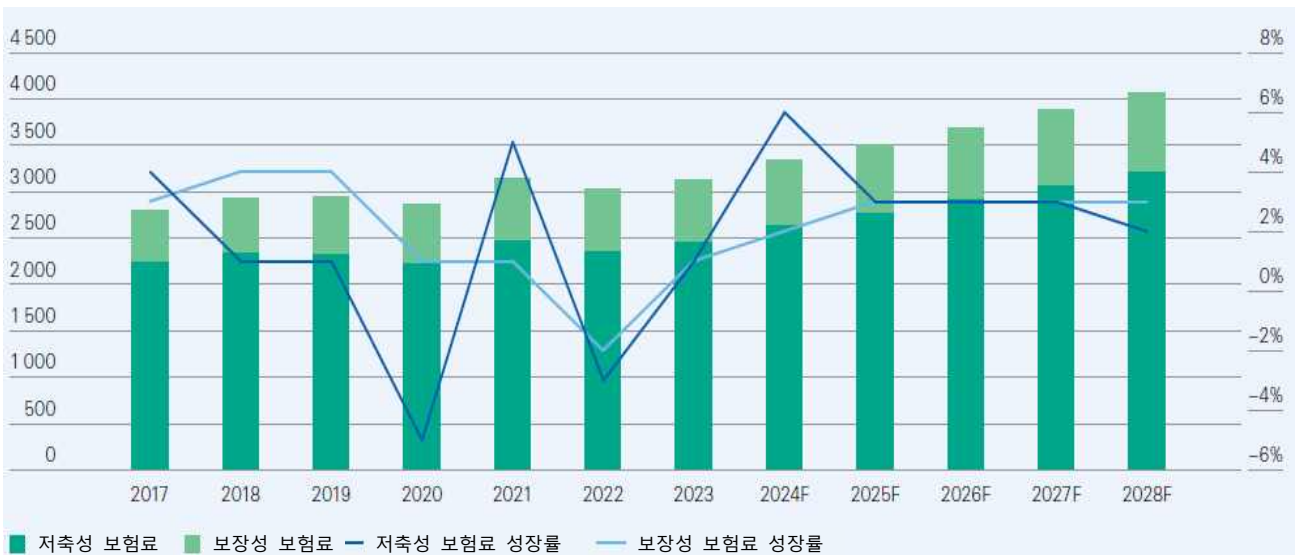


세계 생명보험 시장 전망¹⁾

□ 개요

-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'25년과 '26년에 연평균 3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지난 10년 평균(연 1.3%)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
- 실질 임금 상승, 고금리 지속, 고령화 인구, 신흥 시장의 중산층 증가가 글로벌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
- '24년 최고점을 기록한 저축성 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감소하고, 보장성 보험 시장 성장률은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두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임

[그림1] 세계 생명보험 시장 실적 및 전망



1) 스위스리 "sigma 5/2024," "Life insurance drives global premium growth as interest rates remain higher for longer" 등을 바탕으로 작성

□ 저축성 보험 시장

-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보험 시장이 활황으로 '25년과 '26년 장기 성장 추세('14~'23년 연평균 0.7%)를 크게 웃도는 3.0%의 성장률이 예상됨
- 미국에서는 '24년 개인연금 매출이 역대 최대인 4,000억 달러를 초과하며 과거 10년 평균(연 2,340억)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됨
- 영국의 경우 고정연금에 대한 수요가 '24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, 이후 '25년과 '26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- 중국에서는 저축성 상품의 보장 금리 인하 전망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, 중기적으로도 장기 저축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
- 선진국 시장의 수요는 향후 2년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고정 금리 연금에서 지수연동형 상품*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보임
-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에서는 단위연계 상품*이 강세를 보이고, 이 추세는 '25년부터 미국 및 기타 선진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

* 지수연동형 상품은 특정 금융 지수에 연동된 수익을 제공하는 반면, 단위연계 상품은 주식, 채권 또는 다양한 시장 연동 펀드에 투자함

□ 보장성 보험 시장

- 최근 몇 년간 종신보험, 소득보상보험, 장기간병보험 등 보장성 생명보험 시장은 저축성 보험 대비 안정적으로 성장함
- 보장성 보험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며 보험료 변경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음

-
- '25년과 '26년에 연평균 2.7% 성장이 예측되며, 이는 '14년~'23년 10년 간의 장기 성장세(연평균 3.7%) 대비 낮은 수치임
 - 유럽 시장에서는 소득보상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견고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미국에서는 보장성 생명보험상품 판매가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, 단체 생명 및 건강 판매는 높은 고용 수준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 - 앞으로의 수요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회복 등 경기적 요인, 의료 및 간병 서비스 비용 증가, 고령화, 상품 결합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